

## 成人女性の衣服選擇行動과 關聯變因研究

——自我概念을 中心으로——

金 小 延·趙 必 嬌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家政教育學科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Selection Behavior and Personal variables of Adult Women

So-Yeun Kim, Phil-Gyo Cho

Dept. of Home Economics,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988.1.27.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Personal variables and Clothing selection behavior.

Self-concept was measured with Choi Jung Hun's 'Perceptual Orientation Scale' and Clothing selection behavior scale was prepared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were completed by 389 women in Taegu.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F-test, Scheffe's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Clothing selection behavior. (individuality, conformity, economy, modesty).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lothing selection behavior variables according to age.
3.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individuality and economy according to marital status.
4.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individuality, economy and modesty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5.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lothing selection behavior variables according to monthly clothing expenses.

## I. 緒 論

Katona는 現代社會를 ‘大衆消費社會’라고 규정지으면서 대중소비사회의 特徵으로 豊요함, 消費勢力의 増大, 消費者 心理의 重要性을 들고 있다. 이렇듯 대중소비사회는 生産者의 價値・道徳中心에서 소비자價値・道徳中心으로 價値體系・道徳律이 바뀌어 소비자 중심형 사회로 變化되고 있고, 財貨나 서비스에 대한 消費需要는 소비자의 購買力보다 소비자의 心理的・個人的・社會的 要因 및 文化的 要因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써 소비자행동연구도 經濟的 側面보다 行動科學的 側面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sup>1)</sup>

一般的으로 소비자들은 他人으로부터 혹은 自己自身の 經驗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이 정보들을 體系化하고 체계화된 정보를 活用하여 選擇行動을 하게 되며 이러한 過程들은 소비자의 個別的 특징—즉 퍼스넬리티나 demographic인들—의 影響을 받아 행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 행동의 一部分인 衣服行動에 局限시켜 볼 때에도 위와 같은 過程을 거쳐 衣服選擇行動을 하게 되고, 衣服選擇行動에 각 個人的 퍼스넬리티와 demographic인들이 影響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理論을 支持해 주는 많은 研究들에서 퍼스넬리티의 中核의 要素인 自我概念 및 環境변인과 의복행동의 關聯性을 확인해 왔으나, 대다수 先行研究들 특히 國內論文들은 中・고등학생이나 20代를 對象으로 하고 있어서 中年女性들의 自我概念은 의복행동과 어떠한 關係인가?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여러 環境변인들이 衣服選擇行動에 어떻게 影響을 미치는가? 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本 研究에서는 大邱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成人女性을 對象으로 퍼스넬리티의 중심요소인 自我概念과 소비행동에 影響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年齡, 結婚與否, 教育程度, 月平均衣服費를 의복선택행동과 관련지어 살펴보기로서, 自我概念과 年齡, 結婚與否, 教育程度, 月平均衣服費가 의복선택행동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 알아보고, 동시에 성인여성을 對象으로 하는 衣服産業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目的에서 本 研究를 實施하고자 한다.

## II. 理論的 背景

## 1. 自我概念에 관한 研究

19C末 William James에 의해 체계적으로 理論化되기 시작한 自我概念(self-concept)은 그후 行動主義 心理學의 發達로 한동안 關心의 對象에서 벗어났다가, Allport, Rogers, Snygg, Combs 등의 심리학자들의 主張에 의해 다시 인간행동의 中心的 概念으로 擡頭되는 過程에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각기 다른 觀點에서 論議되고 있다.

自我概念을 체계적으로 이론했던 William James는 自我를 個人이 自己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總體 즉, 감각적, 개념적, 인식적, 감정적 成分 등이 합쳐진 자기 자신에 관한 총체라 하였으며, 自我란 自己感情(self-feeling), 自己要求(self-seeking), 自己保存(self-preservation)의 행동이라고 보았다.<sup>4)</sup>

James以後의 自我에 대한 연구는 세가지 主流의 自我理論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Freud, Jung, Sullivan 등을 中心으로 한 精神分析學的 側面과 Cooley, Mead 등을 中心으로 한 社會學的 側面, Rogers, Snygg, Combs를<sup>5)</sup> 중심으로 한 現象學的 側面이다.

Freud는 性格의 構造를 原欲(id), 自我(ego), 超自我(superego)의 세가지 主要체계로 構成된 것으로 보고, 自我는 客體와 區別되는 主體에 대한 自己意識이기 보다 現實原理에 따라 環境에 작용하는 主體의 役割・機能이라고 보고 있다.<sup>6)</sup>

한편 社會學的 側面에서 自我概念을 考察한 C.H. Cooley는 自我概念을 社會的 產物로 보고 他人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의 反映이라고 했으며, reflected self, looking glass self로 說明하고 있다.<sup>7)</sup> Mead는, 自己란 社會的 전달(social communication)이 存在하는 社會的 場面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니는 態度를 취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行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形成된다고 했다.

現象學的 側面에서 人間行動의 中心概念으로 自我概念을 研究한 Rogers는 모든 經驗의 總和로 構成된 現象的 場의 일부분이 점점 分化되어 형성되는 것을 自我라고 보고 있고, Combs와 Snygg는 個人이 언제 어디서나 自己라고 믿고 있는 그 自體가 自我概念이라고 했다.<sup>8)</sup>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自我概念에 대한 定義를 내리고 있는데, Mccandless는 自我概念은 각 개인이 개인적・사회적으로 경험한 모든 것의 頂點

이고 學習된 것이라는 假定下에 변화가 可能하다고 했으며,<sup>8)</sup> Ryan<sup>3)</sup>은 自我概念이란 자기 자신의 特性, 能力, 缺點 및 外貌에 대한 개인의 知覺이고 자기 자신을 한 개인으로 識別하므로서 知覺되는 特性의 전체조직체이며 知覺의 客體로서의 自我는 인간의 행동방향을 결정짓는 單位라고 했다. 또 神山進<sup>9)</sup>은 自我概念을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서의 觀念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고, Hurlock<sup>10)</sup>은 자신에 대해 갖는 思想과 感情의 複合體를 自我概念이라고 定義내리면서, 現實의 自我像(real self image)과 理想的의 自我像(ideal self image)으로 區分했다. 그리고 최정훈<sup>11)</sup>은 인간행동이란 행동하는 者의 自我, 他人, 환경에 대한 主觀的 知覺에 의해 좌우된다는 知覺心理學의 側面에서 각 개인의 주관적 知覺을 知覺向性(perceptual orientation)으로 糾明하고 있다. 그는 ‘知覺向性이란 인간이 자신, 他人 및 事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內容의 傾向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상노<sup>4)</sup>에 의하면, 이러한 自我概念은 개개인의 內的 精神世界에서 일어나는 精神力動의 結果에서 오는 內因性 變因들과 他人에게 비춰진 自己像이 다시 자신에게 投入되어 內面化되는 外因性 變因들의 影響을 받아 形成되게 되고, 이렇게 形成된 自我概念은 그 사람의 行動樣式에 영향을 미쳐, 肯定的 自我概念을 갖는 사람은 自信心, 自敬心을 가지며 適應力이 좋고 박력있게 挑戰·實踐하는 반면, 否定的 自我概念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자신이 없고 주저하며 소극적이고 경쟁적 상황을 피하여 실패를 피하려는 傾向이 있다고 하였다.

## 2. 衣服選擇行動

Jenkin과 Dickey<sup>12)</sup>는 審美性—實用性의 두 가치기준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① 유행지지자(Fashion Advocates), ② 질선호자(Quality Seekers), ③ 검소한 심미가(Frugal Aesthetics), ④ 주의깊은 실용주의자(Concerned Pragmatics)로 分類하였고, 박은주<sup>13)</sup>는 의복선택기준을 개성, 경제성, 실용성, 동조성, 정숙성으로 나누고 있다. Kundel<sup>14)</sup>의 연구에 의하면, Blue-collar worker는 의복선택시 안락감과 맛음새를 가장 중시했고 그 부인들은 맛음새, 안락감, 가격順으로 중요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진구<sup>15)</sup>는 한국 女大生들이 의복선택시 정숙성을 가장 중시하고 그 다음으로 관리성, 심미성, 안락감 등을 많이 考慮한다고 했고, 정혜영<sup>16)</sup>은 女大生들이 의복구매시 어울림을 가장 重視하고 스타일, 가격, 색채順으로 중요성을 둔다

고 하였으며, 이향숙<sup>17)</sup>은 職業女性의 의복선택행동을 調査한 연구에서 전반적인 衣服選擇行動 중 경제성, 정숙성, 실용성, 개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동조성은 낮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神山進<sup>18)</sup>은 衣服選擇行動 가운데 同調行動을 중심으로, 安定性·親和欲求가 강할수록, 또 內向的이고 劣等感을 강하게 가진수록 동조행동을 취하기 쉽다고 했다.

한편 消費者가 衣服을 選擇하는 過程에서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性, 年齡, 職業, 結婚與否, 教育程度 등의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이 선택을 支配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한 研究를 보면, 먼저 Kefgan<sup>18)</sup>은 10代 後半에서 20代 初半이 가장 의복에 흥미가 높은 年齡이고 10代에는 의복선택시 사회적 承認을 가장 重視하는 반면, 중년층은 價格, 品質, 管理面에 관심을 갖는다고 했다. Hurlock<sup>20)</sup>은 青年期를 크게 넷으로 나누어 Narcissistic period, Courtship period, Home-building period, Young Motherhood period로 區分했고, 이 가운데 앞의 두 시기가 의복에 가장 큰 중요성을 두는 時期이며, 이 시기에는 fashionable한 外貌를 형성하기 위해 실용성, 경제성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Drake<sup>21)</sup>는, 의복흥미에 가장 영향 미친 환경변인은 연령, 결혼여부, 性의 順序라고 하였으며, Holloman<sup>22)</sup>은 의복에 대한 감정결정에는 연령이 가장 중요한 要因이라고 하였다. 國內 論文 가운데, 강혜원,<sup>23)</sup> 장연화<sup>24)</sup>의 연구에 따르면 20代는 의모에 대한 관심·흥미가 높고 개성을 重視한 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정숙성을 重視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自我概念과 衣服選擇行動

性格의 中核의 部分을 형성하는 自我概念이 의복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의 研究對象이 되어 온 論題이다.

Patsy C.P.<sup>25)</sup>는 自己知覺과 同調性이 負的으로 관련되어 자기지각이 肯定的일수록 동조성을 重視하지 않으며 否定的일수록 周圍로부터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의복을 使用하는 傾向이 강하다고 했고, Darden<sup>26)</sup>은 感情的으로 不安定하고 劣等感이 강할수록 貞淑性에 높은 관심을 갖는 반면, 침착하고 스스로에 滿足하며 自敬心이 강할수록 美的·管理的 側面에 관심을 갖는다고 했으며, 藤原康晴<sup>27)</sup>는 높은 自尊感情을 가진 사람은 個性을 강조하는 의복을 이용하고, 自尊感情이 낮은 사람은 社會的 受容, 貞淑性을 重視한 의복행동을 취한다고 했다. 國內의 양명희,<sup>28)</sup> 정미실,<sup>29)</sup> 김광경<sup>30)</sup>

의 연구에서도 自我概念이 肯定的일수록 개성, 경제성 爲主의 衣服選擇行動을 나타내고 否定的일수록 동조성 爲主의 衣服선택행동을 나타낸다는 結果가 얻어졌다. 그리고 Humprey, Klassen, Creekmore<sup>31)</sup>는 두가지 次元의 自我概念—自尊心, 安定性—과 衣服行動의 關係를 조사·연구하여 自尊心이 높을수록 衣服을 實驗的으로 이용하고 不安定한 자아개념을 가진 피험자들은 衣服管理에 관심을 나타낸다고 했고, Lapitsky<sup>32)</sup>에 따르면 社會의 安全感이 높을수록 衣服의 美的 價値를 중요시했고, 不安할수록 社會의 承認, 同調價値를 중요시했다.

以上の 研究結果들에서 살펴보면, 自己 自身을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스스로를 가치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他人의 承認보다는 나뉠대로의 독특한 個性을 나타내고자 勞力하는 反面, 自身을 否定的으로 보고 感情的으로 不安定하며 劣等感이 강한 사람들은 周圍 사람들의 承認을 얻을 수 있는 衣服을 選擇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Ⅲ. 假說 및 用語定義

#### 1. 研究의 假說

〈가설 I〉 自我概念水準에 따라 衣服選擇行動에는 差異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年齡에 따라 衣服選擇行動에는 差異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結婚與否에 따라 衣服選擇行動에는 差異가 있을 것이다.

〈가설 IV〉 敎育程度에 따라 衣服選擇行動에는 差異가 있을 것이다.

〈가설 V〉 月平均 衣服費에 따라 衣服選擇行動에는 差異가 있을 것이다.

#### 2. 用語定義

自我概念; 各 個人이 自己自身 및 주변환경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主觀的 認知內容을 말한다.

個性; 衣服을 選擇할 때 독특한 디자인이나 색을 선택하고 美的인 면을 重視하며 他人과 다르게 보이는 衣服을 선택하려는 態度.

同調性; 所屬集團의 基準에 준하여 他人이 認定하거나 유행하는 衣服을 선택하려는 態度.

經濟性; 計劃性, 實質性, 耐久性 등의 경제적 측면과 品質, 管理容易性, 着用感과 같은 實用的 측면을 감안하여 衣服을 선택하려는 態度.

貞淑性; 他人을 意識하여 색상·디자인 등이 視線을 集中시키지 않고 노출이 심하지 않은 衣服을 선택하려는 保守的 態度.

### Ⅳ. 研究方法 및 節次

#### 1. 測定道具

##### 1) 自我概念의 測定

一般화된 최종훈의 知覺向性檢査紙를 利用하여 檢査 실시요강을 기초로 140점 以下, 140~160점, 160점 以上の 세 집단으로 나누어 140점 以下는 否定的 自我概念, 160점 以上은 肯定的 自我概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 2) 衣服選擇行動의 測定

衣服選擇行動 測定道具는 先行研究<sup>28)</sup>들을 參考로 하여 豫備調査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개성, 동조성, 경제성, 정숙성의 4개 下位變因을 각각 나타내는 9問項씩, 전체 36問項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성, 동조성, 경제성, 정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2. 調査對象 및 資料處理

本 研究의 調査對象은 大邱市內에 居住하는 389명의 20~50代 未婚·既婚女性들이었다. 1986年 7月初~7月末에 걸쳐 調査를 實施하여, 미비한 資料를 除外한 총 389부를 統計處理에 利用하였다.

資料處理는 SPSS package를 使用하여 自我概念 下位集團, 의복선택행동 下位變因 및 환경변인別 下位集團에 대해 각각 平均치와 표준편차를 算出하였고, 집단間의 差異는 F檢證(가설 I~V)과 Scheffe의 事後比較(가설 I)로 檢證하였다.

### V. 研究結果 및 論議

#### 1. 自我概念 및 衣服選擇行動變因의 分布傾向

自我概念 檢査의 실제점수분포는 106~183점이었고 140점 이상이 全體의 69%를 차지하여, 本 研究對象자들은 대체로 肯定的인 自我概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衣服選擇行動 變因의 실제점수분포는 個性이 13~43점, 同調性은 11~38점, 經濟性은 21~42점, 貞淑性은 19~42점으로 정숙성, 경제성, 동조성 개성順으로 重要性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 自我概念과 衣服選擇行動과의 關係

自我概念과 衣服選擇行動間的 關係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개념점수를 基準으로 High(160점 以上), Middle(140~160점), Low(140점 以下)의 세 집단으로 자아개념 하위집단을 區分하였다. 各 下位集團의 평균·표준편차는 <표 1>과 같고, 集團間的 의복선택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F檢證한 結果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各 集團의 個性·同調性( $p < .001$ ), 經

濟性( $p < .01$ ), 貞淑性( $p < .05$ )行動이 모두 有意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Scheffe의 사후비교를 이용하여 집단별 의복선택행동 점수의 평균을 개별 비교해 본 結果는 <표 3>~<표 6>과 같다.

<표 1>~<표 6>을 綜合해 보면, 140점 以下의 下位(Low)集團과 160점 以上의 上位(High)集團간에 개성·동조성, 경제성行動이 有意한 差異를 나타내어, 自我概念이 肯定的일수록 개성, 경제성을 重視한 衣服選擇行動을 나타냈고, 否定的일수록 동조성을 重視하는 傾

<표 1> 자아개념 하위집단별 의복선택행동의 평균·표준편차

의복 선택행동	자아개념	High(160점 이상)(N=54)		Middle(140~160점)(N=221)		Low(140점 이하)(N=114)	
		M	S.D.	M	S.D.	M	S.D.
개성		33.02	3.33	28.07	4.62	25.61	4.67
동조성		21.85	3.58	23.12	4.12	26.04	3.58
경제성		31.72	4.18	30.86	3.70	29.74	3.91
정숙성		31.52	4.13	32.76	3.37	32.16	3.65

<표 2> 자아개념 하위집단별 의복선택행동의 변량분석표

의복 선택행동	Source	Between			Within			Total		F-ratio
		SS	DF	MS	SS	DF	MS	SS	DE	
개성		2009.58	2	1004.79	7742.84	386	20.06	9752.42	388	50.09***
동조성		880.46	2	440.23	5867.3	386	15.2	6747.76	388	28.96***
경제성		166.86	2	83.43	5659.59	386	14.66	5826.45	388	5.69**
정숙성		77.26	2	38.63	4916.93	386	12.74	4994.19	388	3.03*

\*\*\* $p < .001$       \*\* $p < .01$       \* $p < .05$

<표 3> 자아개념 하위집단별 개성점수 평균의 개별 비교; Scheffe's test

Contrast	$\phi/\hat{\sigma}\phi$
High-Low	10.01***
High-Middle	7.28***
Middle-Low	4.73***

\*\*\* $p < .001$       F=3.72

<표 4> 자아개념 하위집단별 동조성 점수평균의 개별 비교; Scheffe's test

Contrast	$\phi/\hat{\sigma}\phi$
High-Low	6.55***
High-Middle	2.15
Middle-Low	6.49***

\*\*\* $p < .001$       F=3.72

<표 5> 자아개념 하위집단별 경제성점수 평균의 개별 비교; Scheffe's test

Contrast	$\phi/\hat{\sigma}\phi$
High-Low	3.14**
High-Middle	1.48
Middle-Low	2.55

\*\* $p < .01$       F=3.04

<표 6> 자아개념 하위집단별 정숙성점수 평균의 개별 비교; Scheffe's test

Contrast	$\phi/\hat{\sigma}\phi$
High-Low	1.09
High-Middle	2.30
Middle-Low	1.46

F=2.45

〈표 7〉 연령별 의복선택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	20~29세(N=136)		30~39세(N=129)		40세 이상(N=124)	
	M	S.D.	M	S.D.	M	S.D.
개 동	29.04	5.09	27.19	4.71	27.82	5.08
동 조	24.33	4.09	23.10	3.96	23.95	4.40
경 제	29.68	3.47	30.32	3.85	32.06	3.94
정 속	31.96	3.43	32.14	3.75	33.19	3.49

〈표 8〉

Source	Between			Within			Total		F-ratio
	SS	DF	MS	SS	DF	MS	SS	DF	
개 성	237.05	2	118.53	9515.37	386	24.65	9752.42	388	4.81**
성 조	104.25	2	52.12	6643.51	386	17.21	6747.76	388	3.03*
경 제	391.23	2	195.62	5435.22	386	14.08	5826.45	388	13.89***
정 속	113.61	2	56.81	4880.58	386	12.64	4994.19	388	4.19*

\*\*\*p<.001      \*\*p<.01      \*p<.05

向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 개인의自我概念은 行動·役割의重要決定子이며 의복선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 Ryan<sup>3)</sup>의 연구와 自我概念이 肯定的일수록 개성·경제성을 중시하고 否定的일수록 동조성을 중시한 選擇行動을 한다는 양명희<sup>28)</sup>의 結果 및 Pasty,<sup>25)</sup> 藤原康晴<sup>27)</sup>의 結果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진정한 個性主義者는 보다 獨立的이고 社會적으로 安全感을 느끼며 創造的인 반면, 同調者는 他人志向의이고 服從的·保守的·依存的이며 社會적 승인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한 Horn과 Gurel<sup>33)</sup>의 주장과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I>은 수용되었다.

3. 年齡과 衣服選擇行動과의 關係

年齡에 따른 衣服選擇行動의 평균·표준편차와 F檢證結果는 各各 <표 7>, <표 8>과 같다.

<표 7>, <표 8>에 의하면 개성(p<.01), 경제성(p<.001), 동조성·정속성(p<.05)이 모두 有意한 差를 나타내어, 20代는 30代 以上에 비해 개성·동조성을 重視한 衣服選擇을 하는 반면, 경제성과 정속성은 年齡이 증가할수록 重視되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10代後半~20代가 가장 衣服에 대한 興味가 높고 20代는 경제성이나 실용성을 重視하지 않는다는 Kefgan,<sup>19)</sup> Hurlock,<sup>20)</sup> 장연화<sup>24)</sup>의 연구결과와 一致되고 있고, 연령증가에 따라 정속성이 더욱 重視

된다는 강혜원,<sup>23)</sup> 홍금희의 결과와도 一致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II>는 수용되었다.

4. 結婚與否와 衣服選擇行動과의 關係

<표 9>는 結婚與否에 따른 衣服選擇行動의 평균·표준편차, <표 10>은 結婚與否에 따른 衣服選擇行動의 變異分析結果이다.

結果에 따르면, 結婚與否에 따라 개성(p<.01)과 경제성(p<.001)에서 有意한 差가 나타났다. 즉, 未婚女性은 의복선택시 개성을 重視하는 반면, 既婚女性의 경우는 경제성에 重要性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는, 結婚以前 女性들은 fashionable한 外貌를 維持하기 위해 實用性·안락감을 기꺼이 희생하지만 結婚後에는 보다 實際的인 욕구들에 의해 패션에의 興味는 사라지게 된다고 한 Hurlock<sup>20)</sup>의 연구 및

〈표 9〉 결혼여부에 따른 의복선택행동의 평균·표준편차

의복선택행동	결혼여부		미혼(N=122)		기혼(N=267)	
	M	S.D.	M	S.D.	M	S.D.
개 성	29.05	5.06	27.58	4.93	27.58	4.93
동 조	24.39	4.07	23.54	4.20	23.54	4.20
경 제	29.66	3.43	31.10	3.99	31.10	3.99
정 속	32.07	3.53	32.57	3.61	32.57	3.61

〈표 10〉 결혼여부에 따른 의복선택행동의 변량분석표

Source 의복 선택 행동	Between			Within			Total		F-ratio
	SS	DF	MS	SS	DF	MS	SS	DF	
개성	181.54	1	181.54	9570.88	387	24.73	9752.42	388	7.34**
동조성	60.45	1	60.45	6687.31	387	17.28	6747.76	388	3.50
경제성	175.85	1	175.85	5650.60	387	14.60	5826.45	388	12.04***
정숙성	21.25	1	21.25	4972.94	387	12.85	4994.19	388	1.65

\*\*\*p<.001      \*\*p<.01

〈표 11〉 교육정도에 따른 의복선택행동의 평균·표준편차

교육정도 의복선택행동	중졸이하(N=60)		고졸(N=155)		초대졸(N=31)		대재(N=51)		대학이상(N=92)	
	M	S.D.	M	S.D.	M	S.D.	M	S.D.	M	S.D.
개성	25.85	4.52	27.60	4.82	29.35	3.94	28.69	4.81	29.40	5.53
동조성	23.22	4.17	23.85	4.18	23.52	4.30	25.08	4.41	23.49	3.91
경제성	33.32	3.31	30.56	4.00	28.74	4.11	29.86	2.76	30.14	3.16
정숙성	32.53	3.51	33.03	3.65	31.42	3.48	32.18	3.60	31.76	3.44

〈표 12〉 교육정도에 따른 의복선택행동의 변량분석표

Source 의복 선택 행동	Between			Within			Total		F-ratio
	SS	DF	MS	SS	DF	MS	SS	DF	
개성	563.37	4	140.84	9189.05	384	23.93	9752.42	388	5.89***
동조성	115.57	4	28.89	6632.19	384	17.27	6747.76	388	1.67
경제성	596.16	4	149.04	5230.29	384	13.62	5826.45	388	10.94***
정숙성	131.66	4	32.92	4862.53	384	12.66	4994.19	388	2.60*

\*\*\*p<.001      \*p<.05

이 금실의 연구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따라서 〈가설 Ⅲ〉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5. 教育程度와 衣服選擇行動과의 關係

教育程度에 따른 衣服選擇行動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1〉과 같고, 변량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1〉,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教育程度가 높아짐에 따라 個性을 強調한 衣服行動을 하는 반면, 經濟性과 貞淑性은 教育程度가 낮은 피험자들의 경우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教育정도가 높을수록 美的인 면과 남과 다르게 보이는 衣服을 重視하는 傾向이 있다고 한 양명희,<sup>28)</sup> 김정호, 이금실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Ⅳ〉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6. 月平均衣服費와 衣服選擇行動과의 關係

全般的인 經濟水準보다는 의복선택행동과 直接的인 關係가 있다고 생각되는 月平均衣服費에 따라 衣服選擇行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표준편차, F 값을 算出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표 14〉에 의하면, 월평균의복비에 따라 個性, 經濟性(p<.001), 同調性(p<.01), 貞淑性(p<.05)이 모두 有意味한 差異를 나타내어, 의복비 支出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個性表現을 重視할 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과 비슷한 衣服行動을 하고자 하는 傾向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복비 支出이 적은 사람들은 限定된 金額으로 衣服을 選擇하게 되므로 經濟性을 重視한 行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經濟적 수준이 높을수록 衣服의 流行性과 誇示性을 重視여긴

〈표 13〉 월평균의복비에 따른 의복선택행동의 평균·표준편차

월평균의복비			1만원 이하(N=112)		1~2만원(N=111)		2~4만원(N=84)		4만원이상(N=82)	
			M	S.D.	M	S.D.	M	S.D.	M	S.D.
의복 선택 행동	개	성	26.69	5.05	27.72	4.79	29.37	4.91	28.95	4.93
	등	조	22.84	4.35	23.76	4.05	24.12	3.58	24.85	4.41
	경	제	31.72	3.63	31.09	3.54	29.69	3.60	29.57	4.43
	정	숙	33.26	3.50	32.03	3.64	31.94	3.77	32.26	3.28

〈표 14〉 월평균의복비에 따른 의복선택행동의 변량분석표

Source			Between			Within			Total		F-ratio
			SS	DF	MS	SS	DF	MS	SS	DF	
의복 선택 행동	개	성	432.65	3	144.22	9319.77	385	24.21	9752.42	388	5.96***
	등	조	203.17	3	67.72	6544.59	385	17.00	6747.76	388	3.98**
	경	제	322.92	3	107.64	5503.53	385	14.29	5826.45	388	7.53***
	정	숙	117.46	3	39.15	4876.73	385	12.67	4994.19	388	3.09*

\*\*\*p<.001

\*\*p<.01

\*p<.05

다른 이금실의 결과 및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복 동조성과 身分象徵性이 높아진다는 박은주<sup>17)</sup>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가설 V>는 수용되었다.

#### IV. 結 論

本 研究의 結果 및 論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自我概念水準에 따라 衣服選擇行動에는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즉, 自我概念이 肯定的인 集團은 個性과 經濟性을 重視했고, 否定的인 集團은 同調性을 重視했다.

2. 年齡에 따라 衣服選擇行動에는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즉, 20代는 個性과 同調性을 重視한 반면, 30代以上은 經濟性과 貞淑性을 重視했다.

3. 結婚與否에 따라 衣服選擇行動에는 部分的으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즉, 未婚女性은 個性을 重視한 반면, 既婚女性은 經濟性을 重視했다.

4. 教育程度에 따라 衣服選擇行動에는 部分的으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즉, 教育程度가 높은 女性은 個性을 重視한 반면, 教育程度가 낮은 女性은 經濟性과 貞淑性을 重視했다.

5. 平月均衣服費에 따라 衣服選擇行動에는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즉, 月平均衣服費 支出이 많은 女性은 個性과 同調性을 重視한 반면, 支出이 적은 女性은 經濟

性을 重視했다.

#### 參 考 文 獻

- 1) 김동기, 현대마케팅원론, 서울; 박영사, (1984)
- 2) B. Sternthal, C.S. Craig, Consumer Behavior, N.J.;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82).
- 3)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 4) 이상노, 성격과 행동의 지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1979).
- 5) 이명희, 예의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학적 변인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 6) 이관용, 이상노共譯, 성격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5).
- 7)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1984).
- 8) 김명자, 여학생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가정학회지, 16, 4(1978).
- 9) 神山進, 被服心理學, 東京; 光生館, (1985).
- 10) Hurlock, E.B., Child Development, McGraw-Hill, (1972).
- 11) 최정훈, 지각형성검사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1969).



- 12) Jenkin, {Dickey, Consumer types Based on Evaluative criteria underlying clothing decis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3, (1976).
- 13) 박은주, 의복선택기준에 관한 요인 구조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14) Kundel, C., Clothing practices and preferences of blue-collar workers and their families, *Homes Economics Research Journal*, 4, No. 4, (1976).
- 15) Jin-Goo Kim, Selected clothing behaviors, Interests in Clothing and selected clothing practices for a group of college women in Korea,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1970).
- 16) 정혜영, 의복구매행위에 관한 실태분석, 의류학회지, 8, No. 1, 17~25, (1984).
- 17) 이향숙, 직업여성의 의복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8) 神山進, 被服の選擇に みられる 同調行動と その 決定因, 衣生活研究, 7, No. 3, 21~31.
- 19) Kefgan, M., Individuality 2nd ed., N.Y.; Macmillan, (1976).
- 20) Hurlock, E.B., The Psychology of Dress, N. Y.; Arno Press, (1976).
- 21) D.H. Drake, Clothing interests of young adult, middle aged and elderly men,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1978).
- 22) Holoman, L.O.,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Demographic variables an Influencing factors on the clothing of Black, *Home economics R.A.*, (1978).
- 23)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집, (1974), 340~369.
- 24) 장연화, 의복의 구매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25) Pasty, C.P., Self-perception relative to selected clothing attitudes and practices and clothing usage,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1975).
- 26) Darden, L.A., Personality correlates of clothing interest for a group of Non-incarcerated and Incarcerated woman,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 of North Carolina, (1975).
- 27) 藤原康晴, 女大生の被服關心度と 自尊感情との關係, 家政學雜誌, 23, No. 10, (1982), 548~552.
- 28) 양명희, 청소년기 근로여성의 의복선택행동과 자아개념의 상관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29) 정미실,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형성과의 상관연구, 의류학회지, 8, No. 1, (1984), 21~27.
- 30) 김광경, 자아정체감과 의복관심도와와의 관계, 의류학회지, 8, No. 1, (1984), 19~28.
- 31) Humprey, Classen, Creekmore,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 *J. of Home Economics*, 63, No. 4, (1971), 246~250.
- 32) Lapitskey,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social security and insec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 of Pennsylvania, (1961).
- 33) Horn, Gurel, The Sekond Skin, Houghton Mifflin Co., (1981).